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
		배포일시	2019. 4. 6(토) 총 2매	
담당 부서	공공주택 지원과	담당자	·과장 김영혜, 사무관 곽인영, 사무관 홍승희 ·☎ (044) 201-4479, 4533	
	주거복지 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석기 ·☎ (044) 201-4504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강원도 산불지역 이재민 연수시설 임시 이주 착수
 동해지역 이재민부터 순차적 이주..속초·고성지역도 내일부터 이주 시작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강원도 산불 지역 이재민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·한국주택토지공사·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연수시설 중 지원 가능한 객실 수를 파악하여 이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* 임시이주시설 제공가능 연수원 현황(4.6 현재 총 96실 466명)

- 철도공단 망상연수원, LH 속초연수원, 도로공사 속초연수원, 철도공사 양양연수원, 한전 속초연수원, 신용보증기금 속초연수원

- 4.6(토) 현재 동해지역 이재민 전원(9세대 23명)이 임시 대피소에서 철도공단 연수원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.
- 강릉 지역은 이재민 주거지원 수요조사 결과, 농촌 특성상 마을회관을 선호하여 각 지역 마을회관 6개소로 분산 이주하였다.
- 속초·고성지역의 이재민들은 4.7일부터 이재민별로 거주를 희망하는 위치의 연수시설로 단계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다.

- 한편,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합동으로 강원도 산불 지역 이재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‘주거지원 상담부스’를 설치하였다.
- 국토부는 개별 이재민과의 상담을 통해 이재민의 주거지원 수요를 조사하고, 임시주거시설 및 매입·전세임대주택, 모듈러주택 등 이재민 수요에 맞는 주택으로 이주할 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또한 국토부는 평창 올림픽 때 사용되었던 숙소형 모듈러 주택을 이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, 가족단위 이재민이 많은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단위 면적이 더욱 크고 취사시설을 갖춘 가족단위 거주용 모듈러 주택을 신규 제작·확보키로 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김영혜 공공주택지원과장은 “신속한 주거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홍승희 사무관(4533), 곽인영 사무관(4479)에게
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